

SAMC | LAW REVISION

1. 인조흑연 등 74개 품목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할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을 9월 28일 공고했다. 내년에는 석영유리기판, 인조흑연, 폴리카보네이트 등 총 74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초 원자재, ▲국내 생산 불가,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 ▲원활한 물자 수급, ▲중소·중견기업 지원 원자재, ▲유사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국내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이들 물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Read More](#)

2.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를 위한 외국물품 반입신고절차를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반출입물품의 신고절차와 긴급상황 재고조사 사전통지 생략 규정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16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제조·복합물류업체의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제도 이용 및 AEO 업체의 사용소비신고 자동수리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신속화를 위한 반입신고절차를 개선한다.

[Read More](#)

3. 자동차 분해 작업'도 '보세공장 작업 범위'에 포함될 듯

보세공장 특허대상의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 작업(Knock Down)도 포함될 전망이다. 보세공장에서 고철, 폐목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한 후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22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공장 특허대상의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 작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인천항통관지원2과 과부호,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지난 3월 30일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과부호 '09')가 신설됨에 따라 관할 구역을 '인천시 연수구 송도 1·3동 內 보세구역 또는 장치장소'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인천항 수출과(과부호 '15')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 인천항수출과는 관할구역을 제대로 숙지해 과부호 신고 오류에 따른 취하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며, 인천항통관지원2과 수출신고 관할구역을 10월 2일 재안내했다.

[Read More](#)

2. 인도, 지난달 이어 '2주 만에 또' 관세 인상

인도정부가 지난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등 19개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2주 만에 또 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KOTRA 뉴델리무역관은 "인도 재무부가 HS 8517 통신기기장비 중 인터넷전화, 광통신 부품 및 스마트 워치 등 총 4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고 10월 18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KOTRA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상된 4개의 HS코드 중 ITA 적용 품목은 1개로, ITA 협정 위반으로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Read More](#)

3. 첫 '한·멕시코 경제협력위' 개최, 중남미시장 교두보 마련

기획재정부는 멕시코정부와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미 핵심국가인 멕시코와 처음 개최한 고위급 경제협력위로, 양국의 경제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고 수출, 투자, 新산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비준 및 발효 동향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멕시코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중국에서 발급기관이 잘못된 C/O를 받았다면?”

한·중 FTA 및 APTA용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8월 20일부터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국(AQSIQ)에서 각 지역해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국가질량검험검역국 일부 직원의 착오로 8월 20일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관세청은 9월 21일 ‘한·중 FTA 및 APTA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오류발급 관련 안내문’을 시달하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Read More](#)

2. “한·ASEAN FTA 상호대응세율,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유일하게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제도를 두고 있다. 각 계약국은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하고, 상대국은 상호대응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태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다라도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Read More](#)

3. ASEAN, 보호무역주의 해결책 되나?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어려움을 ASEAN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KOTRA는 10월 12일 국내 유일의 ASEAN 전담 국제기구인 한·ASEAN센터와 ASEAN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기관 및 업계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 ▲무역 및 투자 관련 전시회, 사절단, 세미나 등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교육 및 홍보 위탁,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이다. 이 시행령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ad More](#)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주요 내용은 표시사항,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광고의 기준,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 이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ad More](#)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